

# 외국기사 '천적' 이창호 아성 흔들리나



### 삼성화재배·농심배·CSK배 亞바둑대항전 잇따라 패배

### '무패가도' 종지부 "기량 퇴조 아닌 바둑계 평준화" 분석

메이저 대회에서 외국기사를 상대로 무패행진을 해온 '신산' 이창호의 명성이 흔들리고 있다. '영원한 승자도 패자도 없다'는 바둑관이지만, 이창호 9단은 세계 주요 대회에서 외국기사들에게 유독 '천적'으로 군림했다.

이 9단의 명성은 화려한 전력이 대변한다. 이 9단은 농심배에서만 예선 16연승, 본선 14연승을 포함 무려 30연승을 올리는 등 굵직한 세계 대회에서 '무패가도'를 달렸다.

하지만 올 초부터 화려한 명성이 빛이 무색할 정도로 연패를 거듭하고 있다.

지난 1월 중순 제10회 삼성화재배 결승전에서는 중국의 위시허 9단에게 탈미를 잡았다. 메이저 대회 결승에서 외국 기사에게 당한 첫 번째 봉변이었다.

'열린 데 닫힌 격'으로 이 9단은 지난 2월24일 상하이에서 열린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 최종전에서도 일본의 요다 노리모토 9단에게 물을 먹었다.

이 9단이 이 대국에서 돌을 던짐으로써 한국은 농심배 7연패 문턱에서 좌절했다. 농심배에서 무려 예선,본선 포함 30연승을 달려온 그의 화려한 전적도 마침표를 찍었다.

이 9단은 이어 지난 1일 열린 제5회 CSK배 아시아바둑대항전에서 까지 요다 노리모토에게 무릎을 꿇었으며, 상대 전적에서도 8승10패로 밀리고 있다.

이에 앞서 제1회 강원랜드배·중 바둑 대전 제2라운드에서도 패배가 되풀이 됐다. 이 9단은 이 대국에서 중국의 창호 9단에게 흑 3집 반

패로 고배를 마셨다.

그러나 이 같은 이 9단의 성적은 성급하게 '퇴조'로 보는 시각은 무리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외국기사들에게 강한 면모가 다소 희석되고 있지만 슬럼프 없이 꾸준한 그만의 페이스는 '변함 없다'는 것.

이 9단은 삼성화재배에서 휘시하게 심각한 내상을 입었음에도 '속적' 최철한 9단을 제압, 국수 타이틀에 복귀했다. 이에 따라 이 9단의 해외전적 부실의 원인을 '외적 요인'에서 찾아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내 외를 막론하고 '공공의 적'이 된 이창호 9단에 대한 도전자들의 꾸준한 연구와 기량 평준화가 무시할 수 없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이창호 9단이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과거에는 프로 기사와 신예의 실력차이가 많이 났지만 이제는 차이가 별로 없다. 내 기량이 '전만 못하다'기보다 전체적으로 바둑계의 실력이 올라갔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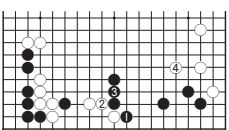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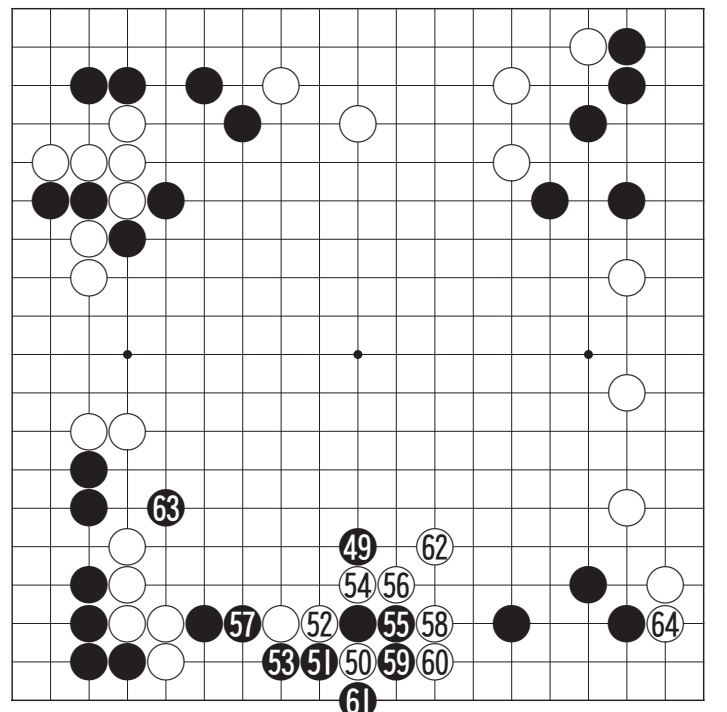
### 예상밖 초강수

준결승 제 4보(49~64)

〈최강부 개인전〉

白 김복현 (5단)  
(가이키우회)

黑 기용성 (5단)  
(하동화력발전소)



〈참고도 1〉



〈참고도 2〉

판세를 살펴보면 초반 적극적인 포석으로 나선 김복현 5단이 약간 앞서 있는 것 같다. 기용성 5단이 어디로 행할 것인지 궁금한 가운데 49의 곳에 두었다. 하지만 이 곳은 너무 침착한 수라 할 수 있다. 만약 이 판을 지게 된다면 '실책'으로 지탄을 받을 만한 소극적인 수다. 상대가 소극적으로 나오자 김 5단의 욕심이 통한 것일까. 백 50으로 벌인 수가 그것으로 김 5단은 참고도 1을 예상한 것 같다. 흑이 1로 물러서면 썩새게 2를 선수한 뒤 흑이 3으로 받아주면 4의 요소를 두어 여유있는 바둑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제까지 순하게 응수해 오던 김 5단이 여기에서 생각지도 못한 강수를 띄워 5단을 놀라게 했다. 흑 51과 53이 초강수였다. 백도 기세로 54와 56로 뚫고 나왔지만 63까지의 결과는 흑이 대승공을 거둔 모습이다. 백 56으로는 지금이라도 참고도 2처럼 참아 두는 것이 좋았다. 한참 동안 반상을 살펴본 김 5단이 64로 우하귀를 밀어간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 “지영이에게 생명의 촛불을~”

### 바둑계, 안지영씨 돕기 온정 줄이어

백혈병에 걸린 프로기사 지망생을 돕기 위해 바둑계가 나섰다. 프로 입단을 준비 중이던 안지영(20)씨는 지난 3월 부산에서 열린 전국 여류아마바둑최고위전에 출전했다가 바둑관이 부엌에 보이는 증상을 겪은 뒤 결국 길에서 쓰러졌다. 병원으로 실려 간 그에게 내려진 진단은 급성 림프성 백혈병이라는 청천벽력이었다. 안씨는 현재 여의도 성모병원 무균실에서 힘겹게 병마와 싸우고 있다. 연간 2여억원이 드는 막대한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바둑인터넷사이트 타이핑에서는 현재 회원들을 대상으로 '지영이에게 생명의 촛불 선물하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아마추어들의 온라인 바둑동호회인 '프바사(프로 바둑기사사랑회)'는 6일 한국기원 대회장에서 안씨를 돕기 위한 행사를 갖는다.



급성 림프성 백혈병으로 현재 여의도 성모병원 무균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안지영(20)씨.

이날 행사에는 조한승, 목진석, 박지은, 홍성지, 이하진 등 뜻이 같은 10여 명의 프로기사들도 동참한다.

프로기사들의 지도도면기, 자유대국, 연기바둑 등이 진행되며 참가비는 2만원이다.

한국기원에서는 2002년부터 올 초까지 한국기원 연구생이었던 안씨를 위해 이날 행사장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한편 별도로 성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 ‘불사조’ ‘무서운 신예’ 눈길끄네!

〈조훈현 9단〉

〈진시영 초단〉

### LG배 바둑에선 4연승 본선행

조훈현 9단과 진시영 초단이 LG배 세계 기왕전 예선에서 화제의 인물로 떠올랐다.

조훈현 9단(53)은 지난달 28일 막을 내린 LG배 세계 기왕전 예선에서 삼성화재배 우승자 휘시허, 중국 신예강자 장웨이 등을 상대로 파죽의 4연승을 거두며 본선 티켓을 거머쥐었다.

조 9단이 세계 메이저대회에서 '우승 맛'을 본 것은 지난 2003년 1월에 막을 내린 제7회삼성화재배.

그가 이번 LG배에서 우승을 차지할 경우 일본의 오다케가 보유 중인 50세 3개월이라는 최고령 우승기록을 갈아치우게 된다. '무서운 신예' 진시영 초단의 정확한



〈조훈현 9단〉 〈진시영 초단〉

나이는 16년 7개월. 진시영 초단은 평평한 선후배 기사들을 제치고 4연승으로 본선에 합류하는 기염을 토했다.

지금까지 LG배에서 초단이 본선 무대를 밟은 것은 2회 대회 이세돌, 7회 대회 윤준상 등 단 2명 뿐이었다.

그는 동갑내기인 중국의 천야오오(지난기 준우승)와 함께 LG배 본선 최연소 출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올 시즌 성적은 연초 11연승 포함 19승5패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

Advertisement for '영화안내' (Movie Guide) featuring 'Happy Time' and '영화안내'.

Advertisement for '메가박스' (Megabox) listing movie showtimes and prices for '만발의 기쁨'.

Advertisement for '엔터시네마' (Enter Cinema) listing movie showtimes and prices for '만발의 기쁨'.

Advertisement for '컬럼버스 시네마' (Columbus Cinema) listing movie showtimes and prices for '만발의 기쁨'.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에이플러스 부동산건설' (E+ Real Estate) listing various properties and servic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아주 특별한 제안' (A Very Special Offer) listing commercial and residential properti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국민지도' (National Map) listing land parcels for sale.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GS부동산건설' (GS Real Estate) listing various properti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용한공인중개사' (Yonghan Real Estate Broker) listing services and contact information.